

이기는 자, 그 대가와 축복

본 문 요한계시록 3장 4~5절, 12절, 21절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요즘 새로 온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기쁘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웁습니다. 저도 동참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새로 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보여 주겠습니다. 깨닫게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저 역시 아무리 지난날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갔던 일이 최고 역사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안 믿었으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셨고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었기에 그것이 표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으러 온 것이 영원한 기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껏 신앙생활 하며 살아온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요. 모두들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허락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자신 스스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도자도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시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히 고통 받는 세계로 가지 않고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이상의 세계, 생명의 세계인 천국에 가도록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참으로 표적입니다. 이를 깨닫고 그 가치를 최고의 첨단으로 크게 알 때 더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돕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복한 길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고통의 세계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 영생을 얻고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가도록 이곳으로 왔으니 얼마나 기쁘니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힘들고 어렵다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현재는 삶이 기쁘고 여러 가지를 누리며 쾌락 속에서 먹고 즐긴다 해도 결국 멸망과 고통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길이라면 웃을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 주를 믿으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그 세계를 생각하면 슬퍼할 일이 아니고 울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나는 행복하다’는 노래에도 나와 있지만, 행복이란 일시적으로 잠깐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 행복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행복하다’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그 원곡을 배워서 전해 주어 여러분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불행하다고 말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인생길로 가면서 주님이 맡긴 일을 하니 행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니 어려울 때 나를 따르는 자들이 위로해 주고, 구름같이 쫓고, 배고플 때 굶지 않게 해 주고, 옷도 사 보내 주고, 아껴 주니 행복합니다.

내가 이 같은 일을 당하여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여도 악한 자들이 하는 것임을 알고 한결같이 믿어 주고 따라오니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귀한 말씀 받아 주니 행복하다며 따라오니 행복합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인생길을 물으셔서 선생으로 모셔주니 행복합니다.

주님은 늘 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어려울 때 능력으로 함께하시지, 성령님은 불같이 역사하시며 감동시켜 주시지, 온 세계 수십 개 나라의 제자들이 선생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 주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세계적인 구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시고 살게 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극한 환난과 고통 중에도 귀한 자를 만나게 하여 전도하게 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시간을 빨리 가게 하여 지겹지 않고 오히려 아쉽게 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사람이 잠만 자도 지겹고, 놀기만 해도 지겨운데 선생은 날마다 희망에 차 밤낮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안 가서 지겨우면 어디 있어도 지옥의 삶입니다.

이 같은 곳에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 행복하나요?” 하니, 주님도 “맞다!” 고 하셨습니다. “너는 행복을 알고 사는 자야. 행복한 사람이야.” 하셨습니다. 각자 자기 행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그리고 요즘 새로 오신 신입생 여러분, 모두 기적의 행복에 싸여서 왔습니다.

‘행복의 노래’는 비단 선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르면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을 깨닫게 되어 주님은 그 가슴에 행복을 더욱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를 깨달을 때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이 줄줄 납니다. 주님께 받은 노래 중에 눈물 없이 받은 노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곡을 주실 때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노래만 보입니다. 눈물과 함께 노래가 흘러갑니다. 모두 ‘나는 행복하다.’를 불러 볼까요?

이제 주님께서 신입생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도 선생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자기 행복을 깨달아야 누린다.” 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신입생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나 예수가 이 같은 말을 하면 새로 온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들어보아라. 그 긴긴 역사가 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가까이 왔다. 바로 너희가 말하는 말세, 곧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그렇다고 한두 달 남은 것은 아니다. 1년을 마치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때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기보다 너희들의 삶을 위해 시간을 쓰기 때문이다.

늦게 왔으니 일찍 온 자보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일찍 온 자들은 그래도 걱정이 덜 된다. 오래되어서 단단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에 빨리 뛰려면 절대 내 말을 듣고 의심하지 말고 지체 말고 믿고 행해야 된다. 열심히 감행해야 된다.

앞으로 온 세상에 환난이 몰아닥친다. 이 환난기 때 너희는 신앙으로 태어났다. 어서 단단하게 커라. 내가 너희와 더욱 함께할 것이다. 헛된 말,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자들과 악평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유혹받지 말아라. “여기 이단이다. 이상한 곳이다.”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나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시작했다. 그래

서 짧은 시간에 이같이 성장했다. 이곳은 말씀으로 신앙을 빨리 성장시키는 곳이다.

어서 뛰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자. 이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피난 가는 자들같이 긴장하면서 서둘러 행해야 된다. 항상 내가 말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오늘도 내 말을 설교로 하니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모두 들었어요? 이제부터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겨라’입니다. 이겨야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시고 계시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모든 일들을 이겨야 흰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도 그 영이 흰옷을 입지 않은 자는 아직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 본문 말씀을 주시어 기록하게 하였고, 이 시대 이 주일에도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며 “내가 계시하는 대로 기록하여 섭리세계 성령의 교회들에게 전하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너희의 선한 행실이 곧 깨끗한 세마포 옷’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 즉 믿는 자들의 옳은 행실을 말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계 19: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더라』

착한 행실보다 더 큰 것은 ‘**주 안에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즉 주님을 믿지 않으면 착해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평생 어린아이같이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지옥사자들에게 지옥 간 자들의 영혼들이 “우리는 종교 생활 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에 왔습니

까?” 물으니, 지옥의 사자들이 하는 말이 “이놈아. 상식을 묻느냐?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온다.” 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야 될 이것을 지옥에 가서야 알게 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흔히 착하게 살았으니 “우리는 천국에 간다. 좋은 영혼의 세계에 간다.” 고 하는데, 죽은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결정됩니다. 선한 영계가 있기는 하나, 그곳을 잠깐 거쳐 결국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선한 영계는 대기소에 불과합니다. 똑똑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옥의 고통을 모두 겪어 봤지요? 극적으로 괴로울 때, 극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조금씩 지옥의 고통을 겪어 본 것입니다. 천국도 겪어 봤지요? 극적으로 기쁠 때, 극적으로 좋을 때 천국을 겪어 본 것입니다.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거들랑 하나님을 절대 믿고 섬기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살면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주님을 애인보다 훨씬 더 사랑하며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할 짓 다 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자기 애인을 두고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애인이라면 애인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 줘야 됩니다. 더구나 자기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를 절대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 공적으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믿습니까?

이제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한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을 떠서 꿈속에서나, 기도 중에나, 비몽사몽간에 희고 깨끗한 빛난 옷을 입고 다니는 예수님이나 천사나 영들을 봤습니까? 본 사람들은 손들어 봐요. 한번 뒤로 돌아봐요. 모두 손을 내리고 본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사람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못 본 자들도 보게 해 줄 테니 말씀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해 주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지워지지 않게 한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때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고 물어보지요? 이에 주님은 “그래, 있다.” 고 대답하기도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시다가 자꾸 물어보면 “없다.” 고 하십니다.

자기가 흰옷을 입었는지,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요? 오늘 설교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면 압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 대화할 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이기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이기라고 하니 올림픽이나 각종 운동경기가 떠오르고 싸움이 떠오를 것입니다. 운동이든지, 싸움이든지 이기려면 강해야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이깁니다. 힘이 센 자가 이깁니다.

우리의 싸움은 치고 막고 때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행실을 함으로 강한 마음과 행실로 세상과 마귀에 속한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격이 황소나 코끼리같이 크지 않아도 되고, 운동선수처럼 단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정신으로 세상과 마귀와 맞서 싸우니 정신이 정말로 강해야 됩니다. 강한 정신으로 실천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끝까지 가면 의로 이기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각자 이기는 데 있어서 체구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지요? 정신이 있지요? 그 마음과 정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싸움을 하여야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자로서 우리들의 영의 아버지시며, 또 다른 센터로 보면 상천하지 영계와 육계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옥도 통치하시고 마귀와 악마도 다 통치하십니다. 만일 마귀를 마음대로 통치하지 못하면 마귀가 천국도 침범하고 지옥에서도 나와 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천국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섬기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가 세상을 구하라고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지옥에 갈 자들을 천국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

으로 믿고 순종하며 절대 그와 일체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긴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같이 하면 이긴 자입니다. 지금의 자기 체력과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작아서 못 믿겠다. 체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 나이가 어려서 못 하겠다. 마음이 어때서 못 믿겠다.’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자들이나, 오늘 새로 온 자들이나 그 체력과 체력, 그 마음과 그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안 믿는 것보다 만 배나 더 좋습니다.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데 만 배만 더 좋겠어요? 억 배, 조 배나 더 좋지요.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체 되어 살면 사탄과 싸워 보지도 않고 사탄을 이긴 자가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천적입니다. 악질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해를 주고 병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마음 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무섭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주님을 못 믿게 방해합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갇은 고통을 주며 지옥 불바다, 그 뜨거운 쪼들 속에 넣고 펄펄 끓는 쪼들을 우리에게 퍼먹이며 수백 가지로 고통을 줍니다. 그 사탄 마귀를 이 세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린아이도 어른도 누구든지 이놈의 악질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악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믿는 자들을 꼬이고 유혹하여 결국 못 믿게 만듭니다. 이들은 보다 악한 자들을 통해 악평하고, 이단시하게 하고, 갇은 누명을 씌웁니다. 마귀에게 쓰임 받는 자는 걸만 사람이지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행하기에 마귀같이 갇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의로 담대하게 싸우고, 성령의 능력과 공의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들의 말은 마귀의 말이니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다 이깁니다. 주먹 싸움해서 이기거나, 어떤 욕을 같이 하고 큰소리치며 무력으로 대항하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말에 넘어지

지 않고, 담대히 견디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 하나님과 주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게 해 주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 편은 기껏 마귀들이나 돕고 악한 자들이나 돕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선한 자만 도우시고, 선한 자의 기도만 들어 주십니다. 주님도 동일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안 보이지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못하게 온갖 발악을 하면서 꼭 기도를 방해하러 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야. 이 귀신아. 물러가라.” 고 확실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담대히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영계에 깊이 들어가가지 않습니다. 인생 삶 속에서 마귀에게 지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것 중에서 최고 힘써 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싫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는 악마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자는 것입니다. 이 악질 마귀들, 그 얼마나 끔찍한 자들입니까?

마귀는 그 수가 많기도 하고, 영이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꼬이고 방해합니다. 그들은 마치 군인들이 몰려다니듯이 다닙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모두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으면 결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필요성을 몰라서,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몰라서 안 믿는 것입니다. 믿게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불교는 석가를 믿게 해 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게 해 줍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해 주고, 감동받게 해 줘야 따라 믿게 됩니다. 말씀을 믿게끔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석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외에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천국이 아닙니다.

열두 살 때 스님을 만나 물어보았을 때도 천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불교는 자비를 가르친다고 하며 ‘착해야 된다. 착하게 살면 좋은 세상에 간다.’ 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천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 세상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 세상의 세계, 곧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쓰고 태어난 자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을 만들고, 그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 같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가 천국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그를 믿게 하고 그가 천국으로 데려 감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서 살던 하나님의 아들로써, 세상에 육신을 쓰고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시고 인생들을 구원시켜 그 영혼들을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로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톨스토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생길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한국 불교의 큰 대사였던 유명한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나는 인생길을 잘못 왔다. 내가 믿을 자를 잘못 선택했다.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 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그가 죽기 전에 지옥의 영계를 갔다가 지옥의 사자들을 보고 와서 한 말입니다. 지옥에 가보면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쓴 글이 있으니 모두 보세요. 인생 다 살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천국에 가는 생명길을 깨달으면 뭘 합니까? 그 글을 보는 자들에게 거울이 될 뿐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은 고통스러우나 미래가 있는 종교이고, 불교는 현실 종교입니다. 종교를 잘 택하고 인생의 싸움을 해야지, 잘못 선택하고 선한 싸움을 해 보았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유대교, 회교, 천주교,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 침례교 등 각종 교파가 많습니다. 잘 택해야 됩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잘 고르고 좋은 밭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참외 씨를 심고 수박만 하게 크게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름을 하며 땀 흘려 길러도 참외를 수박만 하게 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씨를 잘 골라서 잘 심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종교를 택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제대로 신앙을 넣어 주고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토끼 새끼를 사다가 아무리 잘 먹이고 사랑해 주며 큰 농장에 길러도 결국 토끼만큼밖에 못 큼니다. 사슴만 하게 기를 수는 없습니다. 아예 종자를 잘 골라야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섬겨야 할 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 지도자도 잘 골라야 됩니다. 또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구원도 이상적으로 얻을 수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을 믿으면서 악행이나 하고 시기 질투나 하면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그 종자가 마치 참외와 같고 토끼와 같아서 아무리 수고하고 키워도 더 이상 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수박과 같이, 사슴과 같이 크지 못합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오면서 다른 종교를 헐뜯고 악평하지 않았으며 이단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듭나서 그러합니다. 이기는 데 있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22절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 고 했습니다.

(마 5:21-22)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을 전학하고 온 자들도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이는 마귀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나라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인지 말씀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지런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깊이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여 의

인이 되어야 이긴 자가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하며 삼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형제를 위해 살아 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공홀히 여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절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일편단심 끝까지 참고 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는 이긴 자들이며, 주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해 주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사탄 마귀들이 형제들을 통해 갖은 누명을 씌우고 악평하며 중상모략 해도 참고 견디며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믿고 선생을 따라온 자는 이긴 자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견딘 자는 이긴 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만 하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주님을 끊임없이 모시고 섬기며 사랑하고 사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이기고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성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성애 빠지지 않고 이성애 깨끗이 사는 자는 이성에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마귀는 남녀 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묘하게 역사하면서 우발적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이에 빠지지 않은 자, 속지도 않은 자는 이성의 마귀와 귀신들을 이긴 자입니다.

어떤 자는 아직도 마귀의 주관을 받으면서 주님을 배신하며 성적 행위를 못 끊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 사랑을 못 끊겠다.” 고 하며 남자를 따라갔답니다. 어떤 자는 주님을 버리고 여자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이성적 사랑은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주님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면서, 때가 되면 결혼해서 하면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다루고 주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빠지거나 끌려 살면 물질과 재물로 진짜 패한 자입니다. 돈과 물질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명예에서 이겨야 됩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긴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자는 죄와 싸워 이긴 자입니다. 기도를 끝까지 깊이 하는 자는 기도로 이긴 자입니다. 성경을 매

일 볼 만큼 보는 자는 말씀을 읽는 데 이긴 자입니다. 근신하고 시간을 아껴 신앙으로 쓰는 자는 시간과 싸워 이긴 자입니다.

이 모든 것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육신으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과 싸워서 다 이겨야 합니다. 어리다고 못 이기고 큰 사람이라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님과 같이 일체 되어 능력으로 이기고, 기도하여 이기고, 지혜로 이기고, 기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계 3:4-5).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여 그 기둥에다 그 이름을 새겨 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계 3:12). “이기는 자는 주님이 예비한 보좌에 앉게 해 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계 3:21).

노아 · 아브라함 · 이삭 · 야곱 · 요셉 · 다니엘 · 모세 · 여호수아 · 다윗 · 에스겔 · 에스더 · 모르드개 · 기드온 · 엘리야 등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중심인물들은 다 이긴 자들입니다.

자기가 결심하고 주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 마귀도 이기고, 악한 자도 이기고, 가혹하게 대하는 자들도 다 이기고, 이성으로 유혹하는 자들도 이기고, 세상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앞에 천국과 지옥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겨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자기 앞에 싸울 것이 자기만큼만 오기 때문에 자기 힘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을 안 해야 이기는 것이니 결국 자기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겼습니까? 참고 견디며 선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긴 자들입니다. 주님을 절대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다 이겼습니다. 지면 마귀에게 끌려가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섭리를 악평하고 이단시하며 중상모략을 하고 선생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거짓 음모하고 핍박하는 악한 자들과 세상과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들을 싸워 이겨 왔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와 지옥의 사자들에게 꼬임 받아 우리를 괴롭게 하고 갖은 고통을 준 자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들의 몸이 되어 그렇게도 오랫동안 쓰여진 자들은 그 주관을 벗어나려면 정말 오랫동안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겨 왔듯이 오랫동안 몸부림쳐야 그 악마들을 벗어날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마귀들이 귀히 사용하고 자기 군대로 삼던 몸들이라 쉽게 놓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찢박하는 데 쓰였던 마귀들의 몸보다 그동안 찢박받고 고통받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쓰였던 우리들이 결국은 나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마귀들이 악한 자들의 몸을 쓰고 너무나도 괴롭히고 마치 전갈이 쏘는 것같이 갖은 고통을 주니 ‘차라리 저들에게 가서 고통을 받지 말자.’ 하며 그들에게 간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6.25 남북전쟁 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잔인하게 괴롭히니,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북한 공산당을 따라간 격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곳에서 50년 이상을 생지옥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아 능력과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 빛나게 하고,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여 하나님도 천사들도 증거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몰라주고 서운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는 말을 하고, 충격적인 일을 당해도 절대 넘어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